

고등학생의 고령화사회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

박영희* · 이선정** · 신호식***

광주 중앙여자고등학교*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A Study on the High School Students' Cognition of the Aging Society and the Silver Industry

Park, Young-Hee* · Lee, Seon-Jeong** · Shin, Hyo-Shick***

*Gwangju Jungang Girls' High School**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aging society and the silver industry in adolescents. This subjects were the 642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Gwangju.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Std, x^2 , and t-test using SPSS/PC WIN 14.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attitude to the old was found quite positive in the questioning items concerning the psychological aspects and family relationship. In the questioning items concerning the physical aspect, on the other hand, was the attitude shown a little negative. Most respondents didn't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aging society.

Also the perception toward the ol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meeting frequency with grand-parents. The knowledge of the aging socie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2. Although they recognized the need of the silver industry, they didn't wish to have a job related to the silver industry. Also they represented the idea that the medical care service is the most essential for the silver

1) 교신처: Shin, Hyo-shick,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1 Fax: 062-530-252 E-mail: hsshin@chonnam.ac.kr

industry. The necessary of silver industry, prospect of silver industry and developmental aspect of silver industr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The selection of job related to the silver industr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meeting frequency with grand-parents.

3. Most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need to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the old. In the course of home economics, the education of the silver industry should be given vocation and comprehension about the old. The need to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the old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experience of living and meeting frequency with grand-parents. The education of the silver industr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experience of living with grand-parents.

Key Words: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친화산업(Silver Industry), 노인에 대한 인식(Perception toward the Old)

I. 서론

Drucker(2002)는 『Managing in the Next Society』란 책에서 미래의 사회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Kofi Annan)은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UN 제 2차 세계고령화회의 연설에서 “2050년 지구촌 ‘인구 대역전’ 시대의 인구 고령화를 향한 급속한 진전은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0년에 3.3%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7.2%에 이르렀고 2005년에는 478만 명으로 이미 9.2%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이라면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해 본격적인 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또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통계청, 2005).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데,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될 세대는 바로 지금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고령 사회에서 청·장년층을 형성하여 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원으로서 고령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을 지니게 될 세대이기 때문이다(한정란, 2000).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노래방과 비디오방 등의 소집단적인 놀이 문

화와 TV, 컴퓨터, MP3 등의 개인화된 여가 문화로 인해 집단 활동보다는 개인 또는 소집단 활동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러한 개별화된 문화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부족하게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적어지고 가족에의 구심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족 및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곽혜원, 2005). 또한 핵가족화 현상은 노인 세대와의 자연스런 접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인 노인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고령화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여 그에 대한 해결 의식을 갖고 본인의 진로 선택과 연관지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청소년과 노인 관련 선행 연구들(곽혜원, 2005; 김형수, 2004; 김윤정·정선아, 2001; 임승희, 1999)은 대부분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관한 것이거나 노인부양의식(김영미, 1995; 김채린, 2003; 석정은, 2008; 양혜선, 2005; 이영길, 2006)으로 국한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며, 청소년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이나 진로지도와 연관된 고령친화산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상태이다.

고등학교 시기는 학생들 스스로가 잠정적으로 선택한 직업군을 통하여 취업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여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로 나뉘어 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진학에 필요한 전공 학과 선택과 유용한 방법을 모색하고 직업 세계의 변화와 직업 선정에 관해 계속 탐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은 직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직업훈련 계획을 세우고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및 진로를 고려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기본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1999).

현존하는 직업은 1만 5천 종이 넘고 있으며, 그 중 약 1/4은 25년 전에는 없었던 것이며 25년 후에는 약 1/2 가량이 새로 생기거나 직무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직업을 성공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SCANS Report, 1996). 특히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화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고령자 부양에 있어서도 가정 외부에서 해결하려는 수요도 증가하였으며, 경제력을 갖춘 고령자층의 등장은 소비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 더 가속화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고령화사회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파악하여, 앞으로 개정된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강화될 가족 복지 영역과 진로 지도 영역의 내용 구성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고등학생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1-1. 고등학생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2. 고등학생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고등학생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2-1. 고등학생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2. 고등학생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은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의 인식은 어떠한가?
 - 3-1.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2.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은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고령화사회

1) 고령화사회의 추이

지난 2000년 UN이 정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해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인 18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인데 고령화의 속도는 개인이나 사회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고령화 현상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한국의 빠른 고령화는 소득 증가 등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과 저출산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정부가 2006년 9월 13일 펴낸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 연령이 상승’한 것이 가장 크다. 즉,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임 기간이 단축되고 불임이 증가하며 출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출생이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문제의 뿌리는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젊은이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65세 이상)를 생산연령인구(15~64세)로 나눈 노인 부양비는 2002

년 11.1%로 약 9명이 1명을 부양하고 있었지만 2019년이 되면 19.8%로 늘어나 5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하고, 합계 출산율 또한 1983년에 특정 국가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인 2.1명 아래로 내려간 이래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런 추세 속에 한국의 14세 이하 아이들의 인구 비중은 2005년 19.2%에서 2030년 11.4%, 2050년 8.9%로 계속 낮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14세 이하 어린이 100명 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즉, ‘노령화 지수’도 2005년에는 47명이었지만, 2030년에는 214명, 2050년에는 429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에 관련된 문제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일차적 원인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사람들은 실제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인식과 태도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즉, 환경적 요인이 저출산과 고령화를 야기하고 그것이 내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더 가속화 된다고 할 수 있다.

2) 고령화사회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지식

노인에 대한 인식이란 노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대, 노인에게 받은 인상이나 노인에 대한 독특한 느낌과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등으로 노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노인들을 자원과 권력으로부터 열등한 위치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역할 없는 존재, 비생산적이며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과거의 지배적인 지위를 하락시키게 되었다. 노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고정관념은 사회적,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어 연령차별주의나 조기은퇴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박효정, 2004).

노화는 신체적 쇠퇴, 허약, 무기력, 생리적인 기능의 쇠퇴를 의미하며 노인의 신체적 변화는 가족에게도 부담이 된다. 또한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들은 대체로 자기중심성,

보수성, 의심, 질투, 유연성의 부족,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강함, 적응력의 저하, 아는 체함, 심기성(心機性), 의존성, 과욕구의 증대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임춘식, 2003).

이와 같은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나 독특한 성격은 많은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노인 특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특성으로 부정적인 측면만이 강조되는 데에는 사회 가치규범의 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노인들이 갖는 사회 내에서의 발언권이나 실권 행사 범위가 좁아져서 노화에 적응하여야 하는 노인에게는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이 극단적인 경우 노인 자신의 자존심을 약화시키고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가져올 위험으로 작용한다(곽혜원, 2005).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고령화사회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세대간 갈등과 연령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노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수립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어떠한 현상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노인과 고령화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2.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자의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으로 일반적으로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이라고 알려져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복지제도의 새로운 경향으로 노인 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최저국민수준(National Minimum)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이외의 부가적 욕구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에서 발생하였다고 파악된다. 즉, 고령친화산업은 수익자 부담의 영리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 기본적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력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노후 생활의 안전과 안락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노인 복지의 관심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은 요보호노인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요양산업을 비롯한 건강관련 산업의 요구도가 증가하

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게 되면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가족화 현상은 노인의 가족부양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사회적인 부양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경제력이 있고 자립적이며 개인중심적인 노인층이 형성되어 노인의 욕구도 고급화되고 다양화되어 이에 부응하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정해선, 2005).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 약 6.4조원 규모였던 고령친화산업이 2010년에는 약 31조원, 2020년에는 약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전(全)산업 취업유발효과는 2002년에 약 17만 명 수준에서 2010년에는 41만 명, 2020년에는 66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는 국가 재정 악화, 경제 저성장과 함께 고령자의 건강, 재무 및 생활 위험 급증과 같은 위협 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복지, 교육, 부양 등 공공서비스 확충에 따른 신규 노동시장의 급격한 확대를 유발하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3.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의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 중 노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광필선(1989)은 고등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었으며, 노인 문제에 있어서 심리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노인 문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20, 30대를 중심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박효정(2004)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노인에 대한 인식은 적응 및 대인 관계 영역이 가족관계나 은퇴 및 경제적 영역에 비해 보다 부정적이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부정적인 인식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노인과의 접촉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조부모를 매일 혹은 매주일 방문하고(김윤정·정선아, 2001), 가족과 조부모간에 대면 접촉량과 전화 접촉

량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친근히 접촉한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노인들을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서정기, 1992). 그러나, 김수현과 서병숙(1999)의 연구에서는 활동·자립성, 행복성, 은화성, 협조성의 네 개 요인들 중 협조성 한 가지 요인에서만 동거 경험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고, 한정란(2000)은 과거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기는 하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미정(1996)과 이은미(1990), 장윤옥(2002)의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접촉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별 영향이 없거나 심지어 노인과의 접촉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 더욱 노인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은 노화 관련 지식이나 노인에 대한 지식 연구의 한 부분으로 수행되었는데 고등학생의 노화 관련 지식을 조사한 이나진(2006)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지식 정도가 의미있게 높았고 동거경험이나 접촉빈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류희선(200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지식 정도가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 및 지식과 연관이 있으나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조사된 성별과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라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로 박원근(2006)은 실버산업의 영역을 주거 시설, 건강 의료, 용구 용품, 보험 금융, 재가 복지 서비스, 여가 정보의 6가지로 구분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버산업 프로그램의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주거 시설 유형은 실버타운과 개인 주택의 순으로 선호하였고, 의료지원 형태는 요양시설입소와 의료센터 활용을 선호하였으며, 질병 예방 형태로는 정기 검진과 휴양 및 취미활동 순으로 선호하였다. 또한 실버용품 필요 품목으로서 치료 및 의료기구를, 재테크 방법으로는 연금제도와 저축의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재가복지 서비스 유형으로는 의료지원과 상담/말

벗의 순으로 선호하였고, 여가활동으로는 오락 등 취미활동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러한 선호도를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분야를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그동안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고령친화산업의 실태나 활성화 방안(김득영, 2007; 김란, 2006; 전경혜, 2008; 정해선, 2005)에 치중되어 있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적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는 밝혀진 바는 없으나 성별에 따라 사회 및 직업에 대한 관심분야는 다를 것이며,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및 접촉 빈도 또한 노인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성별,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및 접촉 빈도에 따라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인식(고령친화산업을 알고 있는지 여부, 인식 경로, 필요성, 전망, 직업으로서의 선택 의사 및 이

유, 발달 요망 분야)과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조사는 2007년 8월 17일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7년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 680부를 배부하여 이 중 부실기재 된 38부를 제외한 642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301(46.9)	출생 순위	첫째	322(50.2)	
	여	341(53.1)		중간	80(12.5)	
종교	기독교	178(27.8)		생활수준	막내	213(33.2)
	천주교	69(10.8)			외동	26(4.1)
	불교	51(8.0)	상		14(2.2)	
	없음	331(51.7)	중상		141(22.2)	
	기타	11(1.7)	중		396(62.4)	
아버지 연령	30대	3(0.5)	어머니 연령	중하	67(10.6)	
	40대	508(79.6)		하	17(2.7)	
	50대	119(18.7)		30대	38(6.0)	
	60대 이상	8(1.2)		40대	558(87.9)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1.9)	어머니 학력	50대	38(6.0)	
	고등학교 졸업	225(35.7)		60대 이상	1(0.2)	
	전문대 졸업	31(4.9)		중학교 졸업 이하	21(3.3)	
	대학교 졸업	300(47.5)		고등학교 졸업	360(57.1)	
	대학원 졸업	63(10.0)		전문대 졸업	30(4.8)	
			대학교 졸업	193(30.6)		
			대학원 졸업	26(4.1)		

<표 계속>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아버지 직업	전문기술직	126(19.6)	어머니 직업	전문기술직	50(8.3)
	행정직	31(4.9)		행정직	7(1.2)
	사무직	158(24.9)		사무직	61(10.1)
	판매업	94(14.8)		판매업	77(12.7)
	서비스업	49(7.7)		서비스업	76(12.6)
	농수산업	7(1.1)		농수산업	6(1.0)
	생산직	122(19.2)		생산직	28(4.6)
	미취업	11(1.7)		미취업	266(44.0)
기타	37(5.8)	기타	33(5.5)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각 변수별 전체 사례수(N)에는 차이가 있음.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53.1%, 남학생이 46.9%였고, 출생 순위는 첫째가 50.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절반 이상인 51.7%가 없었다. 생활수준은 ‘중’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62.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은 40대가 각각 79.6%와 8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7.5%,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이 57.1%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24.9%로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 주부인 미취업의 경우가 44.0%를 차지하였고 취업을 하였다더라도 판매업(12.7%)과 서비스업(12.6%)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2. 조사 도구

1) 조부모 접촉 경험

조부모 접촉 경험은 조부모와의 동거 유무와 조부모 방문 횟수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부모와의 동거 유무는 과거와 현재 동거 유무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나 분석에서는 과거와 현재 상관없이 동거 유무로 구분하였고, 조부모 방문 횟수는 거의 매일, 월 1~2회, 연 5~6회, 거의 안함으로 나누었으나 분석시 주 1~2회 이상과 연 5~6회 이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2)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령화사회의 핵심 주체인 노인의 특성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며 고령화사회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져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노인 에 대한 인식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하였다.

노인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윤성혜(1990), 이선자(1989), 정미실(1996)의 연구를 기초로 해서 가족관계 영역, 심리적 영역, 신체적 영역에 관한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관계 영역은 ‘노인은 집에서 귀찮고 힘든 존재로 느껴진다’, ‘노인은 집안의 큰 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은 손자를 귀여워 위해서 버릇없게 만든다’ 등과 같은 가족관계 내에서 노인의 역할과 이미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심리적 영역은 ‘노인은 성격이 까다롭고 완고하며 이기적이다’, ‘노인이 되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낸다’, ‘노인은 젊은이들의 행동을 못마땅해 한다’ 등과 같이 노인의 성격적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신체적 영역은 ‘노인은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를 느낀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성생활을 계속 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관심도 줄어들다’ 등과 같이 신체적인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긍정의 문항인 경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범주 중 응답자가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부정 문항은 역점수화 하였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73이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가족 관계영역이

.61, 심리적 영역이 .60, 신체적 영역이 .61이었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은 김영수(2004), 안병운(2005), 이나진(2006)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 중 고령화사회에 대한 문항과 임춘식(2003)과 최재천(2005)의 저서와 통계청 자료(2006)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은 고령친화산업의 인지 여부와 경로, 필요성, 전망, 직업으로서의 선택 의사 및 이유, 발달 요망 분야 등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 7문항으로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자료를 토대로 8개로 구분하였다.

4)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의 방향은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 관련 교육의 필요성과 고령친화산업 관련 교육 내용의 선호도를 묻는 2문항으로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PC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고령화사회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성별과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노인에 대한 인식,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

1) 전반적인 경향

고등학생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표 2>와 같다. 먼저, 노인에 대한 인식은 가족 관계 영역이 평균 3.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심리적 영역으로 3.04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적인데 반해 신체적 영역에서는 2.40점을 나타내 다소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 척도의 평균 정답률은 총 8점 만점에 2.83점(SD=1.60)으로 35.38%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어, 본 조사 대상자들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

변인		M	SD
노인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영역	3.42	.64
	심리적 영역	3.04	.62
	신체적 영역	2.40	.68
	전 체	3.08	.42
고령화사회 지식(점수범위: 0~8점)		2.83	1.60

<표 3> 성별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

변인	구분	N	노인에 대한 인식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
			가족관계 영역	심리적 영역	신체적 영역	전 체	
성별	남	300	3.42(0.64)	3.04(0.61)	2.41(0.72)	3.03(0.46)	3.03(1.58)
	여	341	3.42(0.64)	3.05(0.63)	2.39(0.64)	3.02(0.48)	2.66(1.59)
	t		-.03	-.08	.46	.19	2.98**

**p<.01

2) 성별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인식도를 긍정적으로 높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에서만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령화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2.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

1) 전반적인 경향

고등학생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5>와 같다.

고령친화산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5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알게 된 경로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34.6%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교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29.6%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 알게 되었다와 ‘신문, 잡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11.0%로 나타났다. TV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3.9%에 그쳐서 과거에 비해 대중 매체로서 TV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는 비율이 51.9%로 나타났

3)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조부모 방문횟수에 따라 노인에 대한 가족관계 영역, 심리적 영역, 전체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조부모를 월 1~2회 이상으로 자주 방문하는 집단이 모든 영역에서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심리적인 영역과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조부모와의 잦은 접촉이 노인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과 가족 관계 측면의

<표 4>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

변인	구분	N	노인에 대한 인식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
			가족관계 영역	심리적 영역	신체적 영역	전 체	
조부모 동거 경험	유	250	3.48(0.64)	3.10(0.59)	2.37(0.67)	3.06(0.45)	2.90(1.58)
	무	390	3.39(0.63)	3.01(0.63)	2.42(0.68)	3.01(0.48)	2.79(1.61)
	t		1.61	1.73	-.88	1.35	.82
조부모 방문 횟수	월 1~2회 이상	83	3.56(0.63)	3.23(0.64)	2.48(0.73)	3.20(0.43)	2.55(1.66)
	연 5~6회 이하	293	3.35(0.62)	2.96(0.60)	2.41(0.69)	3.04(0.40)	2.82(1.59)
	t		2.65**	3.58***	.83	3.08**	-1.35

p<.01, *p<.001

<표 5>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고령친화산업의 인지여부	알고 있다	354(55.1)	고령친화산업을 직업으로 선택	매우 긍정	13(2.1)
	모른다	288(44.9)		긍정	56(8.9)
고령친화산업의 인지경로	가족이나 친척	39(11.0)		보통	221(35.0)
	학교 수업	105(29.6)		부정	193(30.6)
	인터넷 검색	123(34.6)		매우 부정	148(23.5)
	TV	14(3.9)		고령친화산업을 직업으로 선택시 그 이유	밝은 전망
	신문, 잡지	39(11.0)	보람		128(47.9)
	책	18(5.1)	안정성		46(17.2)
기타	17(4.8)	고소득	12(4.5)		
		적성	8(3.0)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	매우 필요	219(34.8)	기타	11(4.1)	
	필요	327(51.9)	고령친화산업 중 발달되어야 하는 분야	요양 서비스	208(33.6)
	보통	70(11.1)		의료복지기기 제조	52(8.4)
	불필요	8(1.2)		정보 산업	39(6.3)
매우 불필요	6(1.0)	여가 산업		117(18.9)	
		금융 서비스		98(15.8)	
고령친화산업의 전망	매우 밝음	89(14.1)	주택 산업	57(9.2)	
	밝음	224(35.5)	한방 산업	19(3.1)	
	보통	243(38.5)	농업 분야	29(4.7)	
	밝지 않음	50(7.9)			
	전혀 밝지 않음	25(4.0)			

고, 매우 필요하다는 34.8%로 나타나 전체의 86.7%가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38.5%이고, 전망이 밝다는 35.5%, 전망이 매우 밝다는 비율이 14.1%나 되어, 49.6%가 고령친화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직업으로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11.0%,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54.1%를 차지해, 전망은 밝다고 생각하나 본인의 직업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친화산업을 본인의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보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밝은 전망’ 때문이라는 응답이 23.2%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적인 ‘안정성’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7.2%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자들이 고령친화산업을 사회 복지 차원의 봉사 정신이 강한 직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 8개 분야 중 가장 발달되

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간병이나 방문 목욕, 재활 지원 등의 ‘요양 서비스’ 분야가 33.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여행이나 레저, 스포츠 등의 지원을 하는 ‘여가 산업’ 분야로 18.9%, 연금이나 보험과 같은 ‘금융 서비스’ 분야가 15.8%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의 인식은 <표 6>과 같이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 고령친화산업의 전망, 발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 고령친화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발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기, 정보, 여가, 금융, 농업 분야를 더 우선시하였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요양,

<표 6> 성별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

변인	구분	남	여	χ^2
고령친화산업의 인지	알고 있음	177(58.8)	177(51.9)	3.08
	모름	124(41.2)	164(48.1)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	필요	250(84.7)	296(88.4)	8.74*
	보통	33(11.2)	37(11.0)	
	불필요	12(4.1)	2(.6)	
고령친화산업의 전망	밝음	139(47.0)	174(51.9)	11.60**
	보통	108(36.5)	135(40.3)	
	밝지 않음	49(16.5)	26(7.8)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선택 의사	선택	32(10.9)	37(11.0)	3.26
	보통	93(31.5)	128(38.1)	
	비선택	170(57.6)	171(50.9)	
발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친화 산업 분야	요양	85(29.1)	123(37.6)	17.56*
	기기	25(8.6)	27(8.2)	
	정보	27(9.2)	12(3.7)	
	여가	56(19.2)	61(18.6)	
	금융	52(17.8)	46(14.1)	
	주택	21(7.2)	36(11.0)	
	한방	8(2.7)	11(3.4)	
	농업	18(6.2)	11(3.4)	

*p<.05, **p<.01

주택, 한방 분야를 더 우선시하였다.

3)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

고등학생의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은 <표 7>과 같이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선택 의사에 있어서만 조부모 방문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조부모 방문 횟수가 연 5~6회 이하로 낮은 경우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직업에 대한 비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조부모와의 잦은 접촉은 노인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선호에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

변인	구분	조부모 동거 경험		조부모 방문 횟수	
		유	무	월 1~2회 이상	연 5~6회 이하
고령친화산업의 인지	알고 있음	140(55.8)	214(54.9)	49(59.0)	153(52.2)
	모름	111(44.2)	176(45.1)	34(41.0)	140(47.8)
	χ^2	.05		1.20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	필요	213(86.2)	332(86.9)	70(88.6)	245(84.8)
	보통	27(11.0)	43(11.3)	7(8.9)	2(2.5)
	불필요	7(2.8)	7(1.8)	36(12.5)	8(2.8)
	χ^2	.70		.81	

<표 계속>

변인	구분	조부모 동거 경험		조부모 방문 횟수	
		유	무	월 1~2회 이상	연 5~6회 이하
고령친화산업의 전망	밝음	131(53.0)	182(47.5)	44(55.0)	133(46.0)
	보통	90(36.4)	153(39.9)	27(33.8)	9(11.3)
	밝지 않음	26(10.5)	48(12.5)	119(41.2)	37(12.8)
	χ^2	1.91		2.05	
고령친화산업 분야 직업 선택 의사	선택	29(11.7)	40(10.4)	11(13.9)	29(10.0)
	보통	92(37.2)	129(33.7)	37(46.8)	89(30.7)
	비선택	126(51.0)	214(55.9)	31(39.2)	172(59.3)
	χ^2	1.43		10.17**	
발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친화 산업 분야	요양	86(35.7)	122(32.4)	24(30.8)	93(32.7)
	기기	21(8.7)	31(8.2)	8(10.3)	19(6.7)
	정보	13(5.4)	26(6.9)	7(9.0)	18(6.3)
	여가	41(17.0)	76(20.2)	17(21.8)	53(18.7)
	금융	39(16.2)	58(15.4)	13(16.7)	49(17.3)
	주택	22(9.1)	35(9.3)	7(9.0)	25(8.8)
	한방	9(3.7)	10(2.7)	2(2.6)	8(2.8)
	농업	10(4.1)	19(5.0)	0(.0)	19(6.7)
χ^2	2.69		7.29		

**p<.01

3.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

1) 전반적인 경향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8>과 같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에 45.0%, 매우 필요하다에 12.5%가 응답해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김다나(2002)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가정 교과에 노인에 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기술·가정 교과에서의 고령친화산업 관련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직업 교육과 노인 이해 교육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37.8%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간단한 직업 안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36.5%를 차지하였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업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15.5%,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교육해야 한다는 10.2%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 단순한 직업 안내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노인 관련 교육 의 필요성	매우 필요	78(12.5)	기술·가정 교과에서의 교육 방향	고령친화산업관련 직업교육과 노인이해교육	234(37.8)
	필요	280(45.0)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업교육	96(15.5)
	보통	209(33.6)		간단한 직업 안내 교육	226(36.5)
	불필요	45(7.2)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교육	63(10.2)
	매우 불필요	10(1.6)			

<표 9> 성별에 따른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의 차이

변인	구분	남	여	χ^2
노인관련 교육의 필요성	필요	158(54.3)	200(60.4)	6.03*
	보통	99(34.0)	110(33.2)	
	불필요	34(11.7)	21(6.3)	
고령친화산업 관련 교육 내용의 선호도	고령친화산업 관련 직업교육과 노인이해 교육	81(28.0)	153(46.4)	24.79***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업교육	51(17.6)	45(13.6)	
	간단한 직업안내 교육	117(40.5)	109(33.0)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교육	40(13.8)	23(7.0)	

*p<.05, ***p<.001

2) 성별에 따른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의 차이

성별에 따른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은 <표 9>와 같이 노인관련 교육의 필요성과 고령친화산업 관련 교육 내용의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노인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여학생의 경우 고령친화산업 관련 직업 교육과 노인 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간단한 직업안내 교육을 실시하는게 좋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여 여학생이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교

육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의 차이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의 차이는 <표 10>과 같다. 조부모 동거 경험에 따라 노인관련 교육의 필요성과 고령친화산업 관련 교육 내용의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조부모 방문 횟수에 따라서는 노인관련 교육의 필요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있

<표 10>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의 차이

변인	구분	조부모 동거 경험		조부모 방문 횟수	
		유	무	월 1~2회 이상	연 5~6회 이하
노인관련 교육의 필요성	필요	155(63.8)	203(53.7)	55(70.5)	142(49.7)
	보통	72(29.6)	137(36.2)	19(24.4)	111(38.8)
	불필요	16(6.6)	38(10.1)	4(5.1)	33(11.5)
	χ^2	6.58*		10.99**	
고령친화산업 관련 교육 내용의 선호도	고령친화산업 관련 직업교육과 노인이해 교육	105(43.6)	128(34.0)	30(38.5)	90(31.7)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업교육	37(15.4)	59(15.6)	9(11.5)	47(16.5)
	간단한 직업안내 교육	83(34.4)	143(37.9)	31(39.7)	110(38.7)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교육	16(6.6)	47(12.5)	8(10.3)	37(13.0)
	χ^2	9.00*		2.23	

*p<.05, **p<.01

는 경우와 조부모 방문 횟수가 월 1~2회 이상으로 잦은 경우 노인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좀 더 직접적인 노인 이해 교육과 고령친화산업 관련 직업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거경험이 없는 대상자들은 간단한 직업안내 교육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고령화사회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인식 중 가족 관계 영역과 심리적 영역은 중간값보다 높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신체적 영역에서는 중간값보다 낮아 다소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은 중간값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성별,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먼저, 노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조부모를 자주 방문하는 경우가 모든 영역에서 더 긍정적이었는데 특히 심리적인 영역과 가족 관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잦은 접촉이 노인의 심리적인 측면과 가족 관계 측면의 특성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고령친화산업에 대해 과반수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식 경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친화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고령친화산업 중 가장 발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요양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

았으며, 고령친화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하나 본인의 직업으로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 만약 고령친화산업을 본인의 직업으로 선택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보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직업을 경제성보다는 봉사 정신과 같은 심리적 만족감이 강한 직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먼저,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여학생이 고령친화산업의 전망을 더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친화산업 분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기, 정보, 여가, 금융, 농업 분야를 더 우선시하였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요양, 주택, 한방 분야를 더 우선시하였다.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직업 선택 의사에 있어서는 조부모 방문 횟수가 월 1~2회 이상으로 잦은 경우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직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의 인식을 살펴보면, 고령친화산업의 발달에 대비한 노인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기술가정 교과에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직업 교육과 노인 이해 교육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단순한 직업 안내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어함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의 인식 차이는 먼저,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 방문 횟수가 잦은 경우에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친화산업 관련 교육 내용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여학생인 경우와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인 이해 교육과 고령친화산업 관련 직업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고령화사회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고등학생들이 노인을 가족 관계 영역이나 심리적 영역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신체적 영역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노인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발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고령친화산업의 분야’에 대한 응답에서 간병이나 방문 목욕, 재활 지원 등의 요양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노인의 신체적 영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특히,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있거나 접촉 횟수가 많을수록 노인에게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주목할 때 앞으로 다가올 고령 사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인들과의 접촉의 기회를 증가시켜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임을 알고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고등학생들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 정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교육이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에 대해 소홀했다는 결과이며, 다가올 고령 사회나 초고령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책은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는 것이므로 고령 사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미 일선 학교 현장에서 노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고등학생들이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분야의 직업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련 산업에 대한 직업 교육의 부재로 인해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복지 차원의 ‘봉사’와 ‘희생’의 성격이 강한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 수준은 높지만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나 직업으로서의 선호도가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의 직업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령친화산업은 앞으로 무한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직업 교육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조차도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가능성에 비추어 노인관련 지식교육과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고령친화산업 관련 직업에 대한 안목을 넓혀줄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고령화사회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 방향의 설정과 앞으로 개정된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강화될 가족 복지 영역과 진로 지도 영역의 내용 구성에 기초 자료가 되리라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직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훨씬 더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곽필선(1989). **노인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혜원(2005). **청소년이 지각하는 노인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199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기술·가정**. 서울: 대한교과주식회사.
- 김다나(2002). **중·고등학생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한 노년기 교육의 필요성**.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득영(2007). **대구지역 고령친화산업의 환경분석과 육성과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란(2006).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서병숙(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회**, 19(2), 97-111.

- 김영미(1995). **청소년이 지각한 모, 조부, 조모 관계와 노인부양의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수(2004).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대전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정선아(200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간의 관계 규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73-183.
- 김채련(2003). **노인부양에 관한 청소년의 의식조사 연구: 도시, 농촌간 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보건복지부.
- 류희선(2004). **대학생들의 노화에 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원근(2006). **실버산업 프로그램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정(2004).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 2, 30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기(1992). **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관계와 노인에 대한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정은(2008). **제도권 효교육과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명운(2005). **노인유사체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지식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혜선(2005). **신도시 아동 및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성혜(1990). **청년·중년·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진(2006). **남녀 고등학생의 노화 관련 지식 및 노인에 대한 태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1996).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자(1989). **연령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길(2006). **농촌 청소년들의 노인 부양 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미(1990). **중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텔레비전의 드라마와 코메디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승희(1999). **중고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노인문제 해결 태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춘식(2003). **고령화사회의 도전**. 서울: 나남출판.
- 장윤옥(2002).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조부모 부양행동과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청소년의 노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22(1), 191-207.
- 전경혜(2008). **고령친화산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실(1996). **아동, 부모, 조부모의 특성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해선(2005). **고령화사회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천(2005).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생물학자가 진단하는 2020년 초고령 사회**.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통계청(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자료 1월**.
- 통계청(2006). **장래인구 특별추계자료 11월**.
- 한정란(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0(3), 115-127.
- Drucker, P. (2002). *Managing in the next society*. New York: St. Martin's Press.
- U.S. Department of Labor, 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SCANS)(1996). *Learning a living*.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령화사회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고등학생 6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χ^2 과 t-test로 분석하였다.

먼저, 노인에 대한 인식은 가족 관계 영역과 심리적 영역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신체적 영역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과 조부모 접촉 경험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인식은 조부모 방문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지식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은 고령친화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고령친화산업을 본인의 직업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친화산업 중 가장 발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요양 서비스' 분야를 선호하였다.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과 전망, 발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령친화산업 분야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직업 선택 의사는 조부모 방문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은 노인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대부분 느끼고 있었고 기술·가정 교과에서 직업 교육과 노인 이해 교육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고령화사회 및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교육 방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령친화산업 발달에 대비한 노인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성별, 조부모 동거 경험, 조부모 방문 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논문접수일자: 2008년 8월 9일, 논문심사일자: 2008년 8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0월 7일